동물서 로봇까지… 진화하는 사찰 장례

소니 '아이보' 장례식 화제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반려동물 천도재의 선두주자인 일본 사찰이 이제 애완 로봇의 장례까지 도와줘 화제다.

미국 언론 '우프트' 인도 언론 '인디아익스프레스' 등은 도쿄 지바현 이스미시의 고후쿠지(光福寺)서 애완 로봇 '아이보(Aibo)'의 합동 장례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 사찰에선 아이보 100여 대의 영혼을 위로하는 장례식이 종종 열린다.

장례식은 후지소프트의 대화형 로봇인 팔로(Palro) 로봇의 추도사와 분겐오이 스님의 경전 암송으로 진행됐다. 이번이 소니 아이보 로봇을 위한 장례식은 꾸준히 진행 돼 왔다. 팔로 로봇은 추도사에서 "우리는 너희들의 모습과 웃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회상했다.

아이보는 지난 1999년 5월 처음으로 발표됐다. "아이보는 소니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소니 안에서 태어났다"는 아이보의 광고 문구에서 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보에 대한 일본인들의



아이보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스님이 아이보를 안고 있다.



아이보 장례식 현장. 불단에 오른 수명을 다한 애완 로봇들. **사진출처=마시아블 아시아**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25만엔(한화 약 250만원)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20분만에 3천대가 팔려나가면서 매진 사태를 빚었다. 4개월 후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판매에 들어갔는데 이마저 17초만에 매진됐다. 2006년까지 일본 전역에서 팔려나간 아이보는 15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06년 소니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아이보의 판매를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AS는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AS마저 중단됐다. 아이보를 고쳐줄 수 있는 수의사가 없어진 셈이다.

소니가 AS를 중단하자 전문 수리 업체가 등장했다. '어펀(A-Fun)'이란 기업이다. 소니 엔지니어 출신이 나와 설립한 기업이다. 그동안 1200대에 달하는 아이보를 수리해왔다. 어펀의 노부유키 노리마츠 대표는 "아이보는 매우 실용적이었다. 특히 노인들이 아이보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애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어펀은 지난 2015년 1월 아이보 장례식을 처음으로 치렀다. 일부 아이보 사용자들은 죽은 아이보의 장기를

애완 로봇 사용자 많으나
부품 절판에 장례식 진행
작동 중지된 로봇과 함께
찾아오는 신도들 많아…

다른 아이보에게 이식해주기도했다. 아이보의 영원한 삶을 기도한 것이다.

일본 호카이도 분쿄대학의 마카토 와타나베 교수는 "일본에선 사람들이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원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보 처럼 '살아있는' 디바이스를 대리 친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로봇 장례식에 적극 참여하며 그들의 삶에서 살아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 깊은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일본서는 이런 다양한 장례로 그간 발길이 끊어졌던 사찰에 다시 많은 신도들이 북적인다. 장례식에 참여한 익명의 여성은 "애완로봇이 수명을 다하는 것은 실제 동물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매우 겪기 힘든 일이다. 사찰에서 이것까지 위로해주니 정말 고맙다. 앞으로 사찰을 더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 상품화 NO" 中정부가 나섰다

성지 주식 상장 등 상품화
중국불교협회 나서 반대해
결국 푸퉈산 IPO신청 기각

중국에선 관광을 겸한 성지순례가 과열돼 성지순례가 오히려 관광상품화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맞서 불교 본연을 자세를 호지해야 한다고 제지하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일본 '니혼케이자이 신문' 등 외신은 4월 25일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관음성지 푸퉈산(普陀山)의 관광 상품화를 막기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고 보도했다. 푸퉈산은 중국 4대 불교 명산중 한 곳이며 상하이에서 13km정도 떨어진 바다에 있는 섬이다.

문제의 시작은 푸퉈산 관광을 전담하고 있는 '푸퉈산 여행발전 위원회'의 발표였다. 지난해 위원회는 늘어나는 관광객에 맞춰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신설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자금조달을 위해 IPO(신규주식상장)를 중국증권감독위에 신청했다.

이에 '중국불교협회'는 푸퉈산의 과열된 관광 상품화에 반대하며 "신앙이라는 명복으로 주식을 상장하고, 성지 본연의 자세와 멀어지게 하는 일체의 행동에 중국사회 전체에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불교계는"종교적인 것에 금전적인 투자와 그 이익을 취하는 일은 중국인의 사회기질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증권감독위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푸퉈산 여행발전 위원회가 신청한 IPO는 지난 11월 중국국가종교사무국이 발안한 '종교성지의 상업이용에 관한 법규'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공시에서 푸퉈산에 대한 IPO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미 상장이 통과된 다른 두 성지와는 다른 결론이다. 앞서 1997년에는 문수성지인 우타이산(五台山)이, 2015년엔 보현성지인 어메이산(峨眉山)이 주식을 상장한 바 있다.

푸퉈산은 당나라 때부터 관음성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최전성기인 청중기에는 3개의 큰 사찰과 88개의 암자, 148개의 법당이, 승려는 비구 비구니를



푸퉈산 전경. 사진출처= 중국 관광국

합쳐 2000여명에 달했다. 중국의 공산혁명이후 사세가 기울긴 하였으나 경제개방과 함께 중산층이 급증하면서 푸퉈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불교성지라는 스토리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됐다. 지난해 푸퉈산의 방문객은 총 8백5십만 명으로 이는 그 전년도(2016)보다 14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다. 저장성 여행국에서 판매하는 푸퉈산행 왕복 페리 운임 수입은 한화로 약 1,300억원을 넘기는 등 나날이 관광이 활발해 지고 있다. 푸퉈산 여행발전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업계획서에는 해상 케이블카, 대형 주차장, 온천시설의 신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는 내용이 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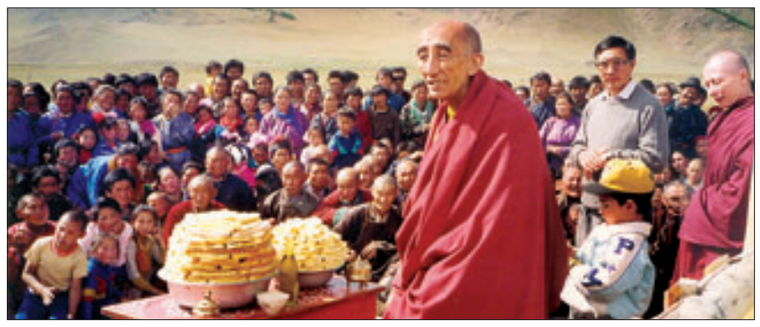
지나친 관광 상품화에 대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홍콩중문대학 인간불교연구소의 아이린 연구원은 "불교성지에 대한 상업적 이익에 정부에서 제재를 가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미 중국 내 대부분의 불교성지는 상업화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가 기업을 상대하여 이긴 것은 경제를 중시하는 현 중국 정부의 성향에서 생각하기 힘든 결과"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은 시진핑 주석의 친불교적 성향이 반영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블룸버그'의 평론가 아담 마인터는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중국의 전통종교들에 대한 국가지원이 늘고 있다. 시진핑 자신의 종교적 성향이 공표된 적은 없으나, 그 자신의 커리어와 주변인들의 행보에서 친 불교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최근 중국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샤오린사(少林寺)의 기업화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대변하며, 중국정부가 앞으로 불교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몽골 민주화에 기여한 인도스님 기리다

19대 쿠쇽 바쿨라 린포체 탄신 100주년 법회 봉행



몽골인들에게 연설하는 바쿨라 린포체. 사진출처=더 베터 인디아

몽골이 공산주의에서 자유로워져 민주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인도 스님의 영향이 지대했다. 인도 라다크에서 태어난 19대 쿠쇽 바쿨라 린포체(1917~2003)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몽골에서는 이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더 베터 인디아'는 4월 26일 몽골에서 봉행된 '19대 쿠쇽 바쿨라 린포체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현장을 보도했다. 바쿨라 린포체는 1980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몽골주재 인도대사관의 대사를 역임하며 몽골의 민주화와 몽골불교의 재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념법회는 바쿨라 린포체가 생전에 울란바토르에 세운 페툽사원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인도와 몽골간의 깊은 정신적 유대와 우호를 기리는 내용이었다.

법회에 참석한 인도 외무부 장관 수쉬마 스와라즈(Sushma Swaraj)는 "바쿨라 린포체는 비록 입적하셨지만, 그분의 행적은 인도와 몽골 양국의 우호를 위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분의 가르침은 조화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깨달음의 가르침이다"고 기렸다.

바쿨라 린포체는 1917년 인도 라다크의 왕자로 태어나 13대 달라이라마에 의해 16나한의 한분인 바쿨라 존자의 환생으로 인정받았다. 1936년 티베트로 유학을 떠나 1940년에 가장 높은 법계인 게셰 하람파(불교학박사 · 삼장법사)를 취득하여 인도로 돌아왔다.

왕실출신이라는 신분으로 라다크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면서, 바쿨라 린포체는 인도초대 수상이 되는 자와할랄 네루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1947년 인도의 독립 후 잠무 · 카슈미르주의 개헌의회 의원, 이후 인도 국회의원(1967)과 국가 인권 위원회의 위원(1977)으로도 활동하며 불가촉천민과 인도 소수민족의 권익을 위해 힘썼다.

1980년 바쿨라 린포체는 몽골주재 인도대사로 임명됐다. 몽골정부는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승려이자 외교관으로서 뛰어난 린포체의 지도력에 감동받았다. 몽골은 인도에 가능한 최장기간으로 린포체가 대사로 역임해 줄 것을 요청하여 10년간 대사를 역임하였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정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인 '파드마 부샨'을, 몽골정부로부터는 세 번째로 높은 훈장은 '북극성' 훈장을 수여했다. 바쿨라 린포체는 2003년 뉴델리에서 입적하였으며, 몽골정부에서는 국고를 지원하여 몽골에 사리탑을 세웠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 진신사리 스리랑카에 오다

남방의 부처님오신날인 '웨삭 축제'를 기념하여, 파키스탄 정부가 탁실라 박물관에 소장 중이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대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30일 '선데이 타임스 스리랑카'는 파키스탄 아메드 마쉬마트(Ahmed Hashmat) 고등 판무관이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사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여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아메드 판무관은 "이 사리는 고대 불교유적이 풍무한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리랑카 불교의 중요 축제인 웨



사리를 전달하는 파키스탄 고등 판무관. 사진출처=선데이 타임스 스리랑카

삭에 파키스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진신사리는 1913년과 영국 고고학자 존 마샬에 의해 탁실라에서 발굴된 것으로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에서 발굴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